

연중 제23주일(9월 10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마태 18,15-20)



기도하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19-20)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다그쳐 바쳤던 아침, 저녁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남부럽지 않은 신앙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9. 7.)

시작성가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 믿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때문이다.

17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마태 18,15)

누군가의 미움이 울컥하는 화를 치밀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어 봅시다.

†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20)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도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절도범에서 새로운 삶을, 인생을 열어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새로움을 위해서 거리를 매일 몇 시간씩 청소를 하시던 분이시죠. 새롭게 인생을 사시는 분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절도범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생각해도 흥분되어, 오랫동안 그런 짓을 했습니다. 매번 흥분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절도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

쁜 일도 밥을 먹듯이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체포되어 분당 수정구에 있는 경찰서에 한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취조 중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분의 마음속에 숨겨진 ‘착함’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는 절도 행각을 멈추고 8년 전부터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발적으로 길거리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삶에 대한 참회이자, 앞으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기 위한 경계에서 자신의 품격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충고도 필요하고 죄인의 교정에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 믿음”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